

전남 '직원 있는 자영업자' 5년10개월만에 최저

6월 3만7000명, 지난해보다 6000명 감소... '나홀로 사장' 1만7000명 늘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침체가 일 년 넘게 지속되면서 지난달 전남에서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5년 10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나홀로 사장'은 10개월째 증가 추세며, 광주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종사자는 25개월 연속 늘고 있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광주 4만6000명·전남 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광주는 1000명 증가했지만 전남은 무려 6000명 감소했다.

전남지역에서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15년 8월(3만7000명)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전남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 국내 확산 직전이 지난 2019년 12월 4만3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2월 3만9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1월에는 4만3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가 싶더니 4월 4만2000명, 5월 4만명, 6월 3만7000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 추세다.

반면 전남에서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은 25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7년 7월(25만6000명)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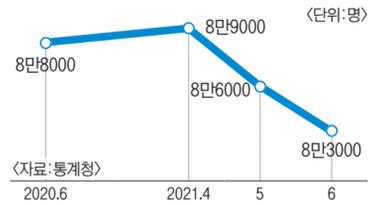
전남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올 들어 3월 25만명→4월 25만3000명→5월 25만4000명→6월 25만6000명으로 석 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전남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은 87.1%로, 경북(87.6%)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전국 평균 77.1%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반면 광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율은 68.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런 추세 속에 전남 자영업자는 점차 영세화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전남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 광주·전남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자 비율은 지난 2015년 8월(87.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직원이 없는 전남 자영업자 비율은 올 들어 4월(86.1%), 5월(86.7%), 6월(87.1%) 등으로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건 코로나19 영향과 최저 임금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져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 부담이 커지며 이런 흐름이 지속됐다.

광주의 경우 지난달 자영업자 수가 3000명 줄면서 15개월 연속 지속되던 증가세를 멈췄다.

광주는 전남과 달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000명 증가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4000명 줄었다.

하지만 무급가족종사자가 지난달 3000명 증가하는 등 2년 1개월(25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수해민 돕기 '사랑꾸러미'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오른쪽 두번째)은 15일 해남·강진·장흥·진도 등 전남 수해민 지원을 위한 '사랑꾸러미' 1000개를 전남도·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전달했다.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즉석식품과 생수, 위생용품 등 17종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직접 만들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전남 제로페이 가맹점 5만개 돌파

소상공인으로부터 '0%대' 결제 수수료를 받는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가맹점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올 들어 2만개 늘었다.

15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현재 지역 제로페이 가맹점은 광주 1만5765개·전남 3만9531개 등 5만5296개로 집계됐다.

제로페이가 출시된 지난 2018년 12월 이후 광주·전남 가맹점이 5만개를 돌파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 가맹점은 3만5693개(광주 1만414개·전남 2만1549개)로, 6개월 새 1만9603개(54.9%) 증가했다.

이달 현재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은 100만개를 돌파했다.

광주는 전체 가맹점의 1.6%, 전남은 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증가율(54.9%)은 전국 평균(37.2%)을 웃돌았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가 아예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다.

가맹점 가운데 연 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전국 가맹점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23만7000여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생활 및 교육업 약 18만개, 편의점 및 마트 약 10만개 순이다.

제로페이는 별도의 앱 없이 사용자가 이용하는 은행 또는 간편결제 앱 내의 제로페이 바코드·큐알(QR)코드를 찍으면 결제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제로페이 월평균 결제액은 약 18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약 700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최정욱 간편결제진흥원 전략사업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결제 방식이 선호되면서 실물 결제 수단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제로페이가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전력혁신본부 신설... 전력산업 탄소중립 선도

에너지공과대 지원단장에 전찬혁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15일 전력산업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전력혁신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켄텍) 지원단장에 전찬혁 한국전력 남서울본부 서초지사가 임명됐다.

대학 설립 준비를 진두지휘해온 '한전공대 설립단'은 확정된 교명을 반영해 '켄텍(KENTECH) 지원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한전공대 설립단장을 지낸 정재전 단장은 커뮤니케이션실장에 임명됐다.

이 밖에 한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공급체계 혁신을 담당할 전력혁신본부를 신설했다.

전력혁신본부장은 최현균 전력시장처장이 맡는다. 정학준 전력거래실장이 전력시장처장 자리에 간다.

신설된 전력혁신본부는 분산발전 계통운영전략 수립, ESG 경영 확산 등 관련 기능을 통합해 수행한다. 산하에 탄소중립전략처와 지속성장전략처를 뒀다.

송변전과 배전 기능간의 협업조직인 재생에너지 대책실도 신설됐다.

한전은 수요관리처와 에너지신사업처 등 부서를 전력수급의 안정적 관리와 에너지효율 향상, 에너지분야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등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기능 위주로 조직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있던 관리분부는 상생관리본부로 재편해 산하에 상생발전처를 설치했다. 상생관리본부장은 이정복 관리본부장이 맡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은 기준금리 0.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지난해 7월, 8월, 10월, 11월과 올해 1월, 2월, 4월, 5월에 이어 아홉 번째 '동결'이다.

지금까지 1년 넘게 금리를 0.5%에 묶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 주춤했으나 추경 집행 등으로 다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 5월에 전망한 대로 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

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코스피	3286.22 (+21.41)
↑ 코스닥	1054.31 (+9.33)
↑ 금리 (국고채 3년)	1.497 (+0.107)
↓ 환율 (USD)	1141.50 (-7.00)

자산·공제 3,000억 달성 기념 경품 대잔치

■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 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대출상담 환영
 집담대출(중도금, 잔금) 관리형 토지신락 사업비 대출 전세(임차)자금 대출

신축사옥 임대문의 환영

※ 임대업종: 한방병원, 병의원, 커피숍, 초밥전문점 등

※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 입구)